

박종원 군수 “광주 북부권에 첨단4지구 조성하자”

광주·장성·담양 일원 409만㎡…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AI·반도체 거점 산단 육성…기업 유치·주거 기능 연계
전남광주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장에 박병규 청장 선출

광주 공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첨단산업과 연계한 ‘첨단4지구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박종원 담양 군수는 최근 북구에서 열린 전남광주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광주 첨단산업과 연계된 광주와 장성군, 담양군 일원 409만㎡ 규모의 ‘첨단4지구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통합시 북구권 공동 발전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첨단1·첨단3지구와 연계한 광주 북부권에 AI반도체 소부장과 의료융합산업단지 추가 지정과 함께 신규 산단과 공공항을 연결하는 ‘전남광주 상생 AI·반도체 벨트’를 구축하자는 계획이다.

박종원 군수는 “광주 북부권의 기존 첨단산업 기반을 담양까지 확장해 기업 유치와 산업·주거 기능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

국 대도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와 옛 전남지역 간 행정 경계가 사라진 만큼 광주 첨단산단과 인접 지역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어 개발해야 한다”면서 “담양군은 첨단4지구 조성을 인공기능(AI)·반도체 등 통합시가 육성하는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북부권 지자체 간 산업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군수는 “북부권 지자체의 공동 발전 전략과 연대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북부권 발전을 이끌겠다”며 “첨단4지구를 비롯한 담양의 핵심사업이 지역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 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는 광산구, 북구, 담양군, 장성군 등 인접한 4개 지자체가 경제·산업,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9



전남광주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21일 북구에서 민선 9기 첫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북부권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중 장성군수,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종원 담양군수.

년 구성된 협의체다. 3대 회장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선출됐다.

이번 회의에서 4개 지자체는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합특별시 북부권 공동발전 및 균형발전 협력 △인공기능(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성장 산업 공동 육성 △교통·문화·관광 분야 협력 확대 △협의회 중심 지속 가능한 협

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핵심제안 안건으로 담양군의 ‘첨단4지구 기업형 도시 조성’을 비롯해 광산구는 초광역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북구는 인공기능(AI)·반도체 산업벨트 공동 육성, 장성군은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및 인공기능(AI)·농생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동 대응이 다뤄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폭염 속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유가족·노동단체, 노동부·기업 규탄 기자회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단체와 유가족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와 유가족은 24일 목포시 상동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고용노동부의 진상규명·재발방지·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24일 영암군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사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기업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기업에서 올해 2월28일 갑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7월24일 폭염 속 정주노동자까지 사망하는 등 불과 6개월 사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기업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영암군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회사가 별도의 업무 회의 없이 오전 7시부터 야외에서 크레인 수리·정비 작업을 준비했고, 노동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쓰러졌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l235@

광주특별시 북구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 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한 끼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라면을 제공하고 이웃 간 관계 형성을 돕는 복지 공간이 마련됐다.

북구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을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라면카페 형태의 ‘같이라면’은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하거나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 밀집도 등을 고려해 동부시장과 무등사회종합복지관 2곳에 공간을 조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구비 4000만원을 투입해 공간을 개보수하고 조리기계와 도구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임영진 기자 looks@

기상청, 9~11월 기후 전망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올가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9월에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이 24일 발표한 ‘2026년 9~11월 전남광주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9~11월 평균기온은 모두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평균기온(21.7~22.3도)과 10월(15.8~16.6도)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50%였으며, 11월(9.3~10.5도)은 60%로 전망됐다. 최근 10년(2016~2025년) 전남광주 가을철 평균기온은 16.8도로 평년(16.0도)보다 0.8도 높았다.

기상청은 서인도양 상공의 고기압성순환과 동인도양·해양대륙 상공의 저기압성 순환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온난 습윤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역시 9~11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주변 해역의 열용량도 평년보다 높아 기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문화가정, 숲속 모기장 영화 관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최근 다문화가정 64명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퀴즈 풀이, 숲속 모기장 영화관,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분야 등, 번역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최근 다문화가정 64명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퀴즈 풀이, 숲속 모기장 영화관,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분야 등, 번역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9월 강수량은 평년(78.9~220.1mm)보다 적을 확률이 60%였으며, 10월은 평년(34.7~64.0mm)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나타났다. 11월은 평년(24.9~59.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됐다. 특히 9월에는 열대 서태평양의 낮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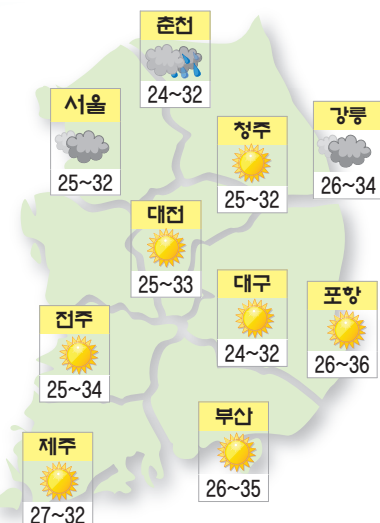
동쪽의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건조한 북풍이 유입돼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9월 말과 10월 말, 11월 말에는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서 기상이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59	달출	17:38
해질	19:09	달림	02:42



광주	☀️	24~34
목포	☀️	25~33
여수	☀️	24~33
순천	☀️	24~34
구례	☀️	24~34
광주	☀️	24~34
해남	☀️	24~34
완도	☀️	24~34
흑산도	☀️	26~31
고흥	☀️	24~34
진남	☀️	24~32
진도	☀️	24~32

목포	밀물(고)	00:34 / 12:14
	썰물(저)	06:20 / 17:57
여수	밀물(고)	07:21 / 20:15
	썰물(저)	01:52 / 13:27

빌린 차로 무면허 뺑소니 입건

만년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무면허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45분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차량을 갓길에 세우겠다”고 말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피해 운전자가 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이후 A씨가 운전면허 없이 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사실을 확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은 운전 미숙과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I시대 인간다움·공존 성찰하는 ‘배움의 장’ 마련

호남대 9~12월 상하관서 시민 교양아카데미 운영

최재천·유홍준 등 인문·과학·예술 석학 6명 강연

인공기능(AI)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바꾸는 시대. 인간다움과 공존의 의미를 성찰하는 열린 배움의 장이 광주에서 마련된다.

호남대학교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AI시대의 교양’을 주제로 ‘호남대학교

교양아카데미’ 렉처 시리즈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과 사회, 문화의 본질을 돌아보고 대학의 지식·문화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

히 각 강연과 함께 호남대 이수영 교수의 작은 음악회 ‘아트살롱’도 진행돼 인문학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강연은 9월 29일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거대한 연결 속의 호모심비우스’를 주제로 연다. 인간과 자연, 사회의 연결과 공존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김진형 서울대 교수 ‘인공기능이

채울 수 없는 결핍, 고전의 지혜’ (10월 13일) △염운옥 경희대 교수 ‘다양성이 힘이 되는 사회, 경계 없는 이웃’ (10월 27일) △이금희 아나운서 ‘한마디 말로 우리는’ (11월 4일) △민태기 ㈜S&H연구소 부사장 ‘경계를 허문 과학자들이 만든 내일’ (11월 24일)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12월 8일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국역사의 저력과 한국문화의 정

체성’을 주제로 마지막 강연에 나선다. 강현주 호남대 교양아카데미 원장은 “AI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일수록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이번 아카데미를 일회성 강좌에 그치지 않고 동서양 고전 읽기, 도시 인문학, 답사 등 다양한 심화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적인 배움과 문화 향유의 장으로 발

전시실 계획이다. 호남대 교양아카데미가 주관하고 (사)피엔씨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강연은 호남대 상하관(4호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수강 신청은 접수 시작일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250명까지 받으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수강생에게는 개원 기념으로 강연자의 최신 저서와 가족 책갈피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호남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교양아카데미 (062-940-5050~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